

영어 생략구문의 음성적 특성과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동사구 생략, 슬루싱, 공소화를 중심으로-

Acoustic Characteristics and Pitch Accent Realization
in English Elliptical Sentences
- VP-ellipsis, sluicing, gapping -

김 회 성**
Heesung Kim

ABSTRACT

Ellipsis is the figure of speech characterized by the deliberate omission of words that are obviously understood, but that must be supplied to make a construction grammatically or semantically comple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ellipsis affects its adjacent elements acoustically and phonologically in English VP-ellipsis, sluicing and gapping. In the experiment, the realizations by English native speakers are set as the criteria for the observing point and are compared to Korean speakers' realizations. For the results, while English native speakers utilized various acoustic information such as word duration and pitch range and phonological information such as pitch accent realization in order to intend the cues for decoding the missing constituent, Korean English learners relied on only duration information and could not use various information effectively.

Keywords: VP-ellipsis, sluicing, gapping, word duration, pitch range, pitch accent, intonation

1. 서 론

생략이란 담화 내에서 상황에 의해 이해되는 명백한 항목들을 누락시킴으로써 잉여성을 피하고 문장간의 의미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 장치이다. 생략에 의해 누락되는 요소는 선행 문맥과 관련하여 의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복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생겨나므로, 생략 후 남은 잔여 요소는 선행절의 의미와 관련된 새로운 요소일 가능성이 높고 새 정보로서 초점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생략 구문 중에서도 동사구 생략(VP-ellipsis), 슬루싱(slucing), 공소화

* 본 내용은 김회성의 2004년도 박사학위 논문인 「영어 생략 구문의 음운·음성적 특성과 억양 실현에 관한 연구」의 제 5 장 실험 I을 발췌한 내용임.

**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gapping)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사구 생략은 등위절이나 종속절로 연결된 접속 구문에서 선행 동사구와의 어형적(morphological), 의미적 동일성(identity)의 전제하에 동사구가 생략되는 현상을 말하고, 슬루싱은 wh절이 wh-구만 남기고 생략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소화는 등위접속 구조에서 후행절의 일부가 생략되는 것으로 대체로 문장의 가운데 있는 성분이 삭제되는 중간 생략의 형태를 보인다.

생략과 관련하여, Jayaseelan(1990: 65)은 동사구 생략의 잔여 요소가 초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Ross(1967: 152)는 슬루싱에서 의문사 절에 하나의 wh-구만 남으면 이 남은 wh-구는 강세를 받는다고 하였다. 공소화에 관해서는 Kuno(1976)와 Jayaseelan(1990: 75)이 생략 후 잔여 성분들이 새정보로서 대조 초점을 가지고 선행절의 요소와 대칭 관계를 이루어 대조 강세(contrastive stress)를 받아야함을 주장하였다.

초점을 받는 요소는 음향 음성학적으로 길이(duration),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세기(intensity) 등에서 그렇지 않은 요소와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략이 일어난 문장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떠한 요소에 의해 생략 전의 문장들과 구분되는가를 알아보겠다. 즉, 생략 전·후 문장의 음성적 변화와 피치악센트 실현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관찰할 것이다.

2. 실험

2.1 실험 목적

본 실험은 영어의 동사구 생략, 슬루싱, 공소화 구문에서 '생략'이 어떠한 음성학적 영향을 주는지를 생략 앞뒤의 단어 길이(word duration)와 피치범위(pitch range)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피치악센트의 실현 양상을 관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고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화자의 특징을 살펴 보겠다.

2.2 실험 문장

길이의 측정이나 피치 분석(피치 범위, 피치악센트의 실현)이 필요한 요소는 파형과 스펙트로그램 상 인접한 단어들로부터 쉽게 분절되고 피치 분석이 용이하도록 분절음을 구성하였다.

실험 문장의 예는 (1)에 제시되었으며, 동사구 생략과 슬루싱의 생략 전·후 각 9 문장씩과 공소화의 생략 전·후 10 문장씩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1) a. 동사구 생략

(생략 전) Kate is an idiot and Jim is an idiot.

(생략 후) Kate is an idiot and Jim is, (too).

b. 슬루싱

Somebody hid my notebook but I don't know who hid my notebook.

Somebody hid my notebook but I don't know who.

c. 공소화

Tom earns fame and Mary earns money

Tom earns fame and Mary money.

실험문장들은 무작위로 제시하였으며 각각 세 번씩 발화되었다. 분석에는 총 1512 ((9+9+10)×2 (생략 전/후)×9 화자×3 반복) 개의 발화가 사용되었다.

2.3 실험 대상과 방법

본 발화실험은 U대학교 소속 원어민 화자 5 명과 K대학교 소속 한국인 화자 4 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특히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는 CBT TOEFL에서 250 이상을 받은 서울말 화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녹음은 Sony DAT와 Sony ECM-MS907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녹음 시 피험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Pitch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략 앞뒤의 단어 길이, 피치 범위를 재고, 피치곡선을 도출해 Pierrehumbert(1980)의 억양 음운론을 근거로 피치악센트를 부여하였다. 측정된 단어 길이, 피치 범위와 휴지 길이에서 세 번 발화한 자료의 평균을 내어 개인별 자료로 최종 선정하였고, 영어 원어민 화자 5 명과 한국인 화자 4 명의 측정값의 평균을 내어 원어민 화자의 전체 평균과 한국인 화자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였다. 자료처리는 MicroSoft Excel 97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7.5.2를 이용하여 도표화하였다.

2.4 실험 측정

생략 전·후의 단어 길이는 일반적인 분절 기준에 의해 파형과 광역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간혹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청각적인 정보나 피치곡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치 범위는 피치 곡선 상에서 기본주파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측정하였다.

동사구 생략 구문 중 ... I can[kæn]에서처럼 /k/의 폐쇄 기간이 어두에 위치하여 발화 전 묵음 기간과 구강폐쇄가 일어난 구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I가 끝나는 부분으로부터 휴지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또, 슬루싱 구문 중 ...it's uncertain what [(h)wat]에서처럼 언제 어떻게 끝났는가를 알 수 없는 어말 폐쇄음 /t/의 경우 기식이 있을 때는 기식이 일어난 곳([(h)wat^h])까지 측정하고 기식이 없는 경우는 [(h)wa]까지만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단어 길이의 절대수치가 아니라 생략 전, 후 길이의 변화 비율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생략 전, 후의 기준을 명확히 같게 한 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실험 결과

3.1 음성적 특성

동사구 생략과 슬루싱은 생략 앞 단어의 길이와 피치 범위 변화를 측정하였고, 공소화는 생략 앞 (N1), 뒤(N2) 단어의 길이와 피치 범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구문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2)와 같다.

(2) a. 동사구 생략

생략 전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worked for IBM.

→ 생략 후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

b. 슬루싱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John is going to Paris.

→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

c. 공소화

I lost a bracelet and Simon(N1) lost a necklace(N2).

→ I lost a bracelet and Simon ∅ a necklace.

3.1.1 단어 길이

생략 전·후 단어의 길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생략 후의 변화한 단어 길이를 생략 전 단어 길이로 나누어 늘어난 비율을 내고, 100을 곱해 %를 산출하였다. 이에 사용된 공식은 (3)과 같다.

$$(3) \quad ((\text{생략 후 길이}/\text{생략 전 길이})-1) \times 100 = \frac{\text{생략 후 길이}-\text{생략 전 길이}}{\text{생략 전 길이}} \times 100$$

측정된 단어 길이에서 세 번 발화한 자료의 평균을 내어 개인별 자료(원어민 화자 5 명: AJ, CE, KM, MS, RS/ 한국인 화자 4 명: ak, bk, ck, dk)로 최종 선정하였고, 원어민 화자 5 명과 한국인 화자 4 명의 측정값 평균을 내어 원어민 화자의 전체 평균과 한국인 화자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였다. 생략 후 단어의 길이 변화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괄호에 생략 전·후의 길이 변화를 paired-T-test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도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생략 후의 단어 길이 변화

	원어민 화자		한국인 화자	
	%	p-value	%	p-value
VPE	112	p=2.55×10 ^{-19**}	71	p=7.27×10 ^{-19**}
Sluicing	65	p=1.57×10 ^{-19**}	46	p=4.60×10 ^{-19**}
Gapping	N1: 20	p=3.10×10 ^{-15**}	N1: 17	p=2.05×10 ^{-6**}
	N2: 8	p=5.85×10 ^{-11**}	N2: 6	p=2.51×10 ^{-4**}

**p<0.01

단어 길이의 변화(장음화)에 대해, 생략 전과 후를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확률(p)이 0.01보다 작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단어 길이가 생략 전보다 생략 후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어민 화자들의 결과를 먼저 살펴본다.

첫째, 동사구 생략, 슬루싱, 공소화 모두에서 길이가 길어졌으며, 생략 후 남은 요소의 길이는 동사구 생략의 동사 > 슬루싱의 의문사 > 공소화의 명사(N1 > N2) 순으로 길었다.

이는 생략의 단서가 인접 단어의 '길이'라는 자질에 얽혀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ooper & Picca-Cooper(1980: 88)는 '생략 후의 장음화(lengthening)는 기저구조에서 무엇인가 할당되었으나 표면에서는 없어진 요소에 대한 시간적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로 생기는 현상으로, 원래는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무의식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동사구 생략과 슬루싱의 늘어난 비율이 공소화의 늘어난 비율보다 컸다.

이는 동사구 생략과 슬루싱의 경우 생략 전 문장의 중간에 있던 요소들이 생략 후에는 문장 끝에 위치하게 되어 생략 전, 후에 위치 변화가 없는 공소화(N1-문중, N2-문미)에 비해 문미 장음화(발화의 끝에서는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다른 모음들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현상) 효과가 부가되어 길어지는 비율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사구 생략의 늘어난 비율이 가장 크다.

이는 피치악센트 실현의 결과와 연결 시켜보았을 때, 생략 전에는 피치악센트를 받지 않던 것이 생략 후에는 동사가 강조되면서 피치악센트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슬루싱과 공소화는 생략 전, 후 모두에서 피치악센트를 받았으므로 피치악센트의 부여가 길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치악센트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길이가 길어지는 영어의 현상과 관련하여, Cambier-Langeveld and Turk(1999: 256)는 '영어에서의 악센트에 의한 장음화(accentual lengthening)는 제 1강세를 받은 음절 초음(onset)의 시작에서 나타나 단어의 끝까지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넷째, 슬루싱이 공소화의 N1에 비해 늘어난 비율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슬루싱과 공소화가 생략 후 처하는 환경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슬루싱은 생략 후 뒤 따라 오는 요소가 없어 더 길게 발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문미 장음화 현상이 생기지만 공소화의 N1은 생략 위치 다음에 바로 명사(N2)가 나와 뒤이은 요소가 없는 슬루싱만큼 길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원어민의 피치 범위의 결과와 연결시켜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섯째, 공소화 중에서도 N1의 길이가 N2의 길이 보다 더 늘었다.

보통 생략이 일어날 때 생략의 선행 요소가 장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공소화와 관련해 '길이 정보가 직접적으로 구조를 회복하고 예상하는데 사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Cooper & Picca-Cooper(1980: 215)의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Jane eats peas

and Kate.'이라는 문장을 주고 생략의 선행요소인 Kate의 [ei] 길이를 변화시킴에 따라 뒤에 공소화가 안된 '...eats chickens.'이 올 것인지 공소화가 된 '...chickens'가 올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피험자들이 [ei]의 길이가 길어질 때 공소화된 구조가 올 것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 길이의 장음화 실현 정도는 원어민(동사구 생략의 동사(112%), 슬루싱의 의문사(65%), 공소화의 N1(20%), 공소화의 N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생략 후 남은 요소의 장음화 비율 크기는 동사구 생략의 동사(71%) > 슬루싱의 의문사(46%) > 공소화의 N1(17%) > 공소화의 N2(6%) 순으로 원어민과 같았다. 이는 원어민 화자든 한국인 화자든 생략이 일어났을 때 이를 표시하기 위해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1.2 피치 범위

피치 범위는 피치곡선 상에서 기본주파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측정하여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빼 산출하였다. 개인별 자료의 선정과, 원어민/한국인 화자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은 단어 길이의 측정에서와 같았다.

표 2. 생략 후의 피치 범위 변화

	원어민 화자		한국인 화자	
	Hz	p-value	Hz	p-value
VPE	10	$p=8.99 \times 10^{-5**}$	12	$p=1.07 \times 10^{-4**}$
Sluicing	2	$p=0.0441^*$	13	$p=5.69 \times 10^{-5**}$
Gapping	N1: 4	$p=9.96 \times 10^{-18**}$	N1: -6	$p=9.23 \times 10^{-13**}$
	N2: 1	$p=3.40 \times 10^{-11**}$	N2: -4	$p=1.40 \times 10^{-6**}$

* $p < 0.05$, ** $p < 0.01$

피치 범위에 대해, 생략 전과 후를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확률(p)이 0.05보다 작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변화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인 화자에서 보이는 음수(-)는 '피치 범위가 생략 전보다 생략 후에서 (유의미하게) 더 줄어들었다'고 해석된다. 먼저, 원어민 화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동사구 생략의 피치 범위 확장 정도가 가장 컸다.

이는 동사구 생략 전에는 피치악센트를 받지 않다가 생략 후에는 피치악센트를 받으면서 길이와 더불어 피치 범위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소화의 N1이 슬루싱보다 피치 범위 변화가 더 컸다.

이는 단어 길이에서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생략 후 뒤따르는 요소가 없는 슬루싱과 달리, 공소화가 N1에는 뒤따르는 요소(N2)가 있어 피치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가팔라져 피치 범

위가 더 커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점을 표현하는데 있어, 생략 후 처하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문미의 슬루싱은 길이를 늘이는 방법을 선호하고, 문중의 공소화 N1은 피치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인 화자의 피치범위 결과는 원어민 화자에게서 보이는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슬루싱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공소화의 경우는 생략 후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해 그 결과가 무작위적이었다. 즉, 한국인 화자의 경우, 길이에 있어서는 원어민 화자와 같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피치 범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3.2 피치악센트 실현

생략위치와 인접한 요소들의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동사구 생략 문장의 주어와 동사, 슬루싱 문장의 의문사, 공소화 문장의 두 명사(N1, N2)를 중심으로 피치악센트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동사구 생략의 결과를 <표 3>를 통하여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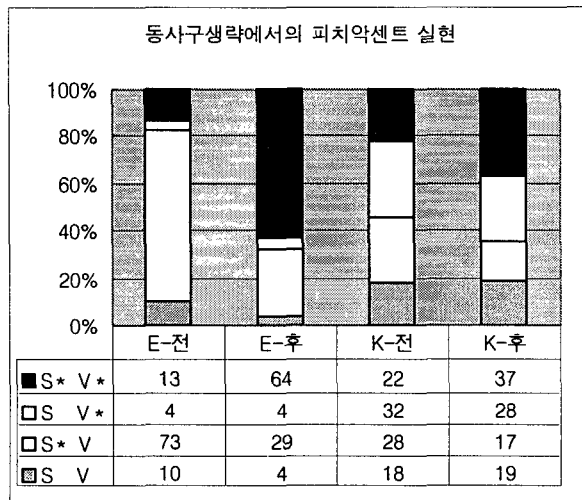


표 3.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의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피치악센트 실현

원어민 화자의 경우, 생략 전·후 모두에서 주어에 피치악센트를 주고 생략 후에는 동사에도 피치악센트를 실현하였다. 생략 전에는 주어에만 피치악센트를 주는 경향(73%)이 강하여 동사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17%(주어에는 피치악센트가 없이 동사에는 있는 경우 4%+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악센트가 있는 경우 13%)에 불과했으나 생략 후에는 생략 위치에 인접한 요소인 동사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68%(64%+4%)로 높아졌다. 피치악센트는 (4)에서 보듯 대부분 H*나 L+H*로 실현하였다.

(4) 생략 전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worked for IBM.

H*/ L+H* .

생략 후 →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

H*/ L+H* H*/ L+H*

이러한 원어민 화자의 억양 곡선의 예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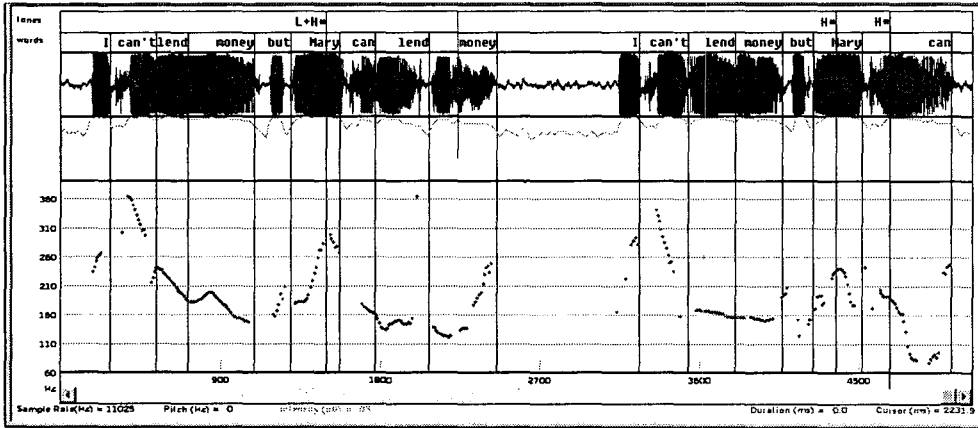


그림 1.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 원어민 화자의 생략 전·후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그림 1>의 다양한 억양 곡선에서 보듯이, 생략 후 피치악센트를 받은 (조)동사는 단어길이와 피치 범위에 있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생략 전 L+H*의 실현이 빈번하였으나 생략 후에는 더불어 H*의 구현도 많았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 생략 전에는 주어에만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 28%,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22%였고, 원어민에게서 거의 볼 수 없었던(4%) 동사에만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도 32%나 되었다. 그러나, 생략 후에는 주어에만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17%로 떨어지고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37%로 높아졌다. 생략 후 남는 요소가 ...she is와 같이 대명사 주어인 경우에는 'she'에 피치악센트를 주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Geroge is와 같이 (고유)명사 주어인 경우에는 'George'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높아, 기능어와 내용어를 구분하여 피치악센트를 부여하는 한국인 화자의 일반적인 경향이 반영되었다.

한국인 화자는 전반적으로 모든 단어에 피치악센트를 할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피치악센트 중에서도 H*와 더불어 L+H 이중성조(L+H*, L*+H)를 많이 구현하였다. L+H 이중성조를 많이 구현하는 것은 LH강세구(Accentual phrase)의 한국어의 억양 특성이 전이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 화자는 이처럼 거의 모든 단어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중에 동사구 생략 후 남는 (조)동사에는 대체로 H* 피치악센트를 실현하였다. (5)를 보자.

(5)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worked for IBM.

• / H* • / H*

→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

• / H* H*

한국인 화자의 동사구 생략 억양 곡선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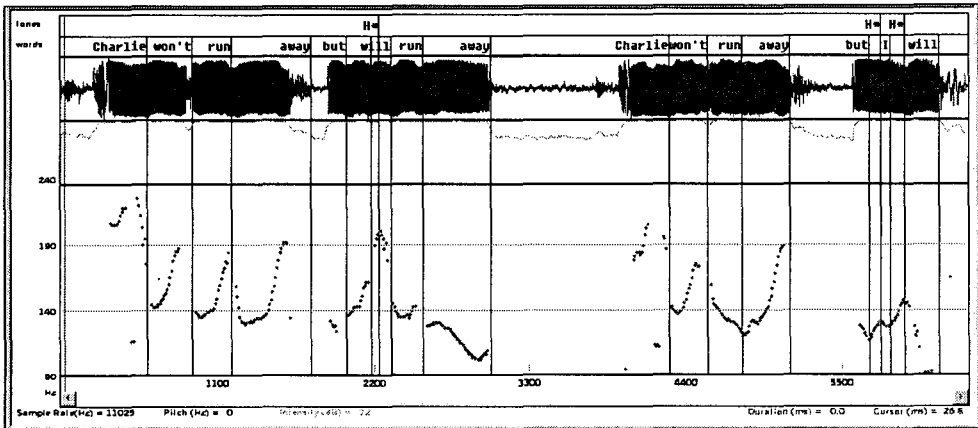


그림 2.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 한국인 화자의 생략 전·후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그림 2>의 선행 억양곡선에서 한국인 화자는 생략 전에 'will'에만 H*를 실현시키다가 생략 후 'I'와 'will'에 H*를 실현시켰으나 'I'에 비해 'will'의 피치악센트가 더 현저하게(salient) 보인다. 이러한 유형은 원어민 화자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양상이다. 다른 단어에는 오히려 L+H*를 많이 구현하였으나 대명사 주어인 I와 조동사인 will에는 H*를 더 많이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슬루싱의 결과를 <표 4>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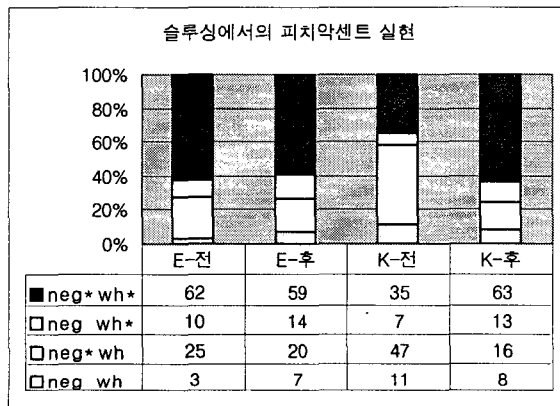


표 4. 슬루싱 구문에서의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피치악센트 실현

슬루싱의 실험 문장에서 부정어(negation: not, do(es)n't...)가 의문사와 가장 인접해 악센트를 받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부정어의 피치악센트 실현 여부가 의문사의 피치악센트 실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부정어도 더불어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부정어의 피치악센트 여부는 결과에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 분석 시, 부정어는 상관없이 의문사의 피치악센트 여부만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원어민 화자의 경우 의문사가 갖는 의미적 비중(semantic weight) 때문에 의문사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생략 전, 후 모두에서 높았다. 생략 전이 72%(부정어에 피치악센트가 있으면서 의문사에도 있는 경우 62%+부정어에는 없으면서 의문사에 있는 경우 10%)였으며, 생략 후가 73%(부정어에 피치악센트가 있으면서 의문사에도 있는 경우 59%+부정어에는 없으면서 의문사에 있는 경우 14%)였다. 원어민 화자는 슬루싱의 의문사에 그 정보와 관련된 의미 비중을 고려한 듯 일반적으로 새정보에 부여하는 피치악센트인 H*를 실현하였다. (6)을 보자.

(6)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John is going to Paris.

H*

→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

H*

원어민 화자의 슬루싱에서의 억양 곡선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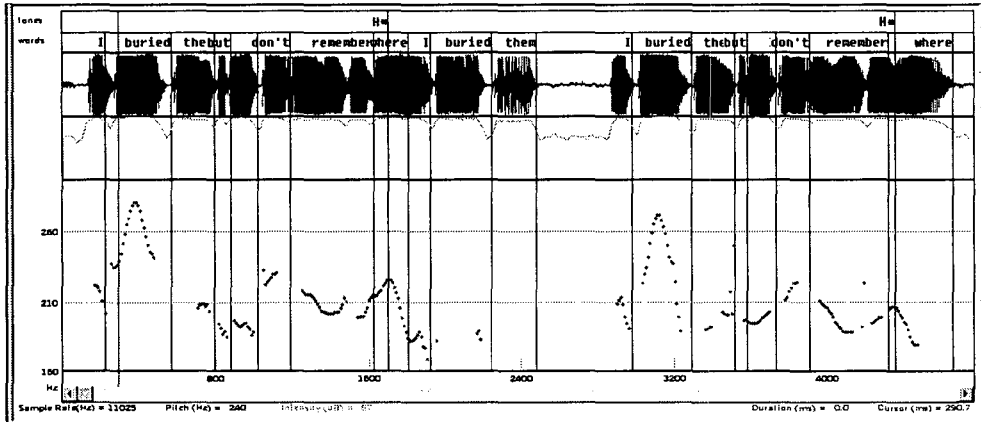


그림 3. 슬루싱 구문에서 원어민 화자의 생략 전·후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그림 3>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원어민 화자는 생략 전·후에서 모두 의문사에 H*를 구현하였으며, 생략 전에 비해 생략 후에 의문사의 길이는 길어지고 피치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 생략 전, 의문사에 피치악센트를 구현하지 않는 비율이 원어민 화자(28%(부정어에 피치악센트가 있으면서 의문사에 없는 경우 25%+부정어에도 의문사에도 피치악센트가 없는 경우 3%))에 비해 58%(47%+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체로 기능어에 피치악센트를

주지 않는 한국인 화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생략 후에는 생략에 의해 강조되는 의문사를 인식한 듯, 의문사 위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비율이 생략 전 42%(부정어에 피치악센트가 있으면서 의문사에도 있는 경우 35%+부정어에는 없으면서 의문사에 있는 경우 7%)에서 생략 후 76%(63%+13%)로 늘었다. 한국인 화자들도 의문사에 H*를 실현하였으나 원어인 화자의 H*와는 사뭇 달랐다. (7)과 <그림 4>를 통해 보자.

(7)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John is going to Paris.

· / H*

→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

H*

한국인 화자의 슬루싱 억양 곡선의 예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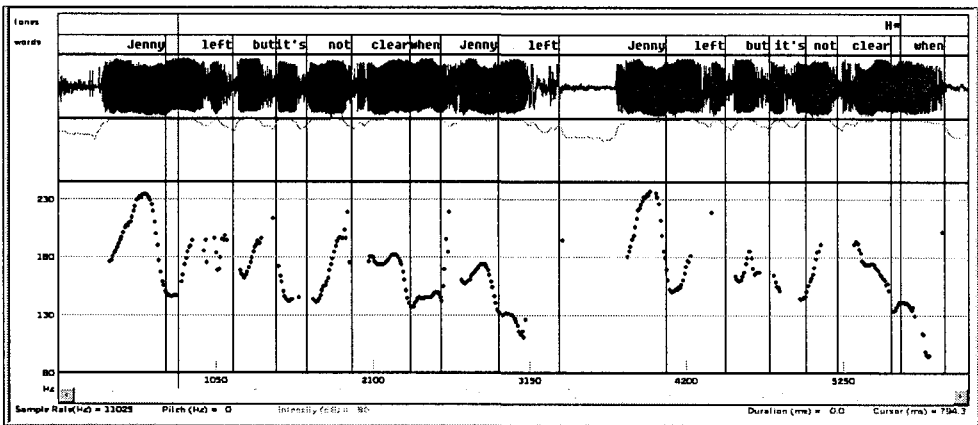


그림 4. 슬루싱 구문에서 한국인 화자의 생략 전·후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그림 4>는 한국인 화자에게서 높은 비율로 보이는 ‘생략 전에는 의문사에 피치악센트를 주지 않다가 생략 후에는 주는’ 예이다. 한국인 화자가 의문사에 부여한 피치악센트는 대체로 H*였으나 이는 오히려 L+H이중성조로 실현된 다른 단어들의 피치악센트 보다 더 약화된 것으로, 의미적 비중을 고려해 다른 요소에 비해 현저하게 강조한 원어인 화자의 의문사의 H*(<그림 3>)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악센트 해지(deaccenting)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단어마다 거의 같은 높이의 피치악센트가 부여되었다.

셋째로 공소화의 결과를 <표 5>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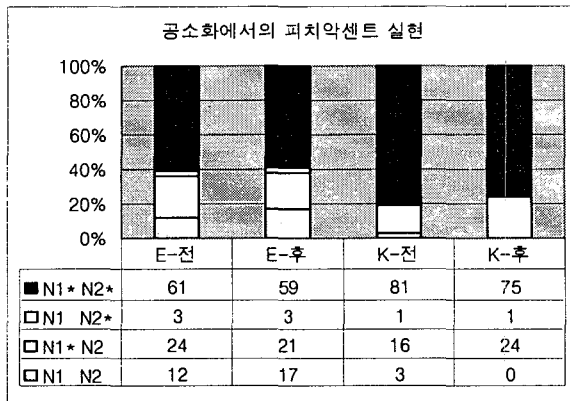


표 5. 공소화 구문에서의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피치악센트 실현

공소화는, 특성상, 생략 후 남은 요소가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며 선행절의 새정보 요소와 짝을 이루므로, 잔여성분들이 대조 강세를 가지고 선행문과 대칭관계를 이루어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 하나의 문장 성분이 다른 성분과 대조될 때의 돌들림(Gundel 1999))을 갖는다. 따라서, 원어민 화자는 생략 전·후 모두에서 N1과 N2에 대조 초점에 의한 피치악센트를 실현시켜, 그 비율이 61% → 5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N1과 N2의 피치악센트를 대부분 H*나 L+H*로 실현하였다. (8)를 보자.

(8) I lost a bracelet and Simon(N1) lost a necklace(N2).

H*/ L+H* H*/ L+H*

→ I lost a bracelet and Simon ∅ a necklace.

H*/ L+H* H*/ L+H*

(8)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피치악센트를 H*나 L+H*로 실현하였기 때문에 N1과 N2에 나올 수 있는 대조 초점의 유형이 이론적으로는 $L+H^*_{N1}$ $L+H^*_{N2}$ / $L+H^*_{N1}$ H^*_{N2} / H^*_{N1} $L+H^*_{N2}$ / H^*_{N1} H^*_{N2} 의 네 가지였지만 호흡 등의 물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N2에 L+H*가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 $L+H^*_{N1}$ H^*_{N2} 와 H^*_{N1} H^*_{N2} 로 실현되었으며, 공소화 이후에 이 두 가지 피치악센트 유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림 5>와 <그림 6>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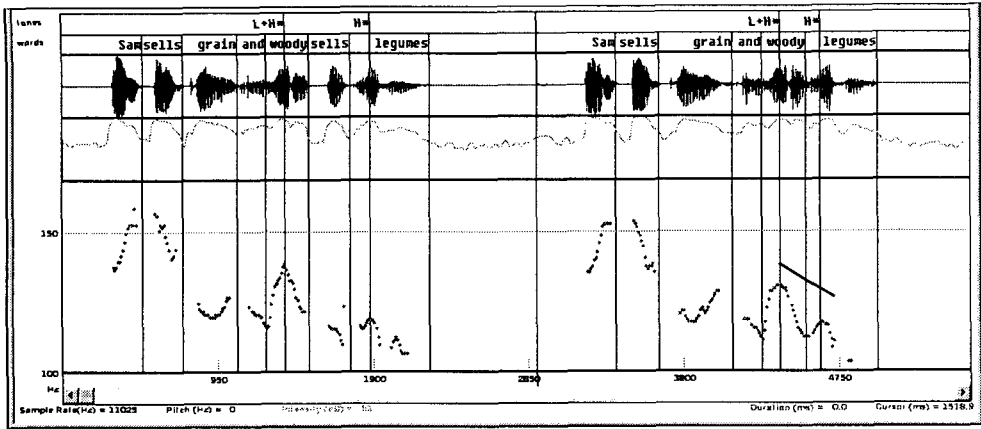


그림 5. 공소화에서 생략 전과 후에 $L+H^*_{N1} H^*_{N2}$ 가 실현된 예(원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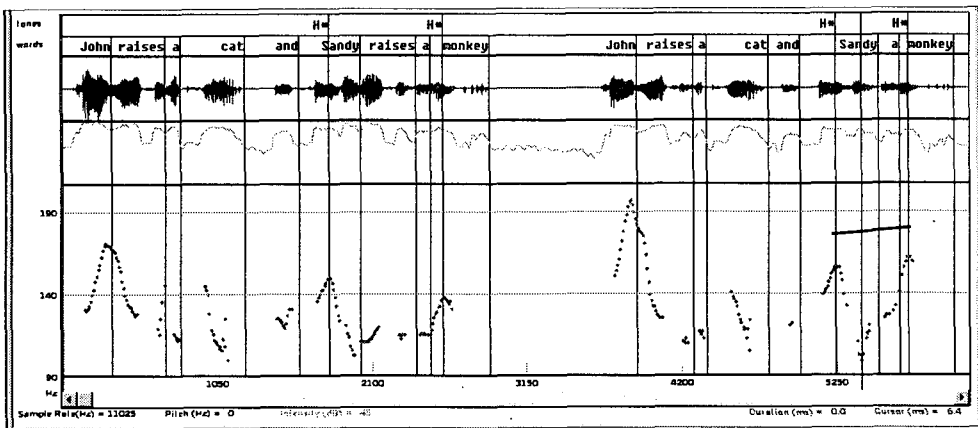


그림 6. 공소화에서 생략 전과 후에 $H^*_{N1} H^*_{N2}$ 가 실현된 예(원어민)

<그림 5>에서 보듯 $L+H^*_{N1} H^*_{N2}$ 의 유형에서는 생략 후에 두 피치악센트에서 자연스러운 기울기 생성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림 6>의 $H^*_{N1} H^*_{N2}$ 유형에서는 두 피치악센트에 자연스러운 기울기를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같은 정도 혹은 뒤가 더 높게 피치정점을 실현하는 예들이 보였다. 생략 후의 H^* H^* 의 피치정점이 대체로 생략 전보다 높았다.

외면적인 결과로만 보았을 때, 특히 공소화에 있어 한국인 화자는 거의 원어민과 유사하게 실현하였다. 즉, 원어민과 같이 생략 전·후 모두에서 $N1$ 과 $N2$ 에 H^* 나 $L+H^*$ 를 실현시켰고, 비율도 81% → 75%로 높았다. 그러나, 이는 생략 후 남는 요소가 모두 내용어로서의 명사라는 공소화의 특성상 한국인 화자들이 이 두 명사에 H^* 와 $L+H^*$ 를 빠짐없이 구현한 결과일 뿐 원어민만큼 혹은 원어민보다 더 잘 실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 곡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원어민의 <그림 5, 6>과 한국인의 <그림 7>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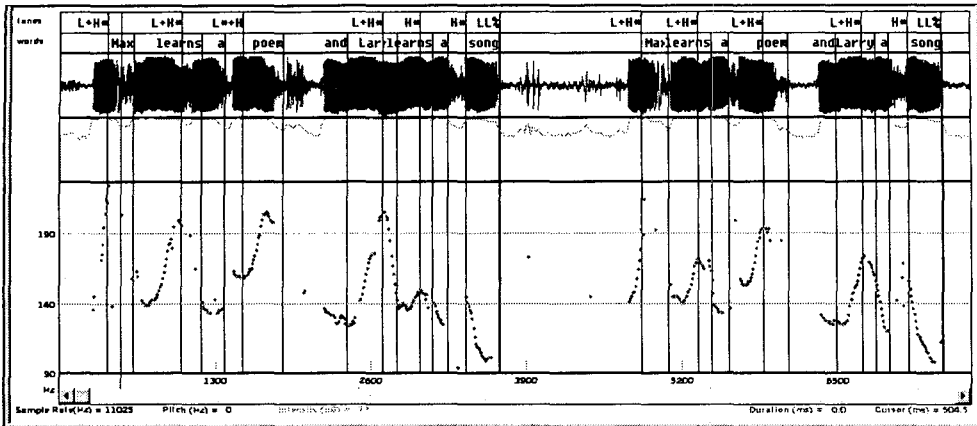


그림 7. 공소화 구문에서 한국인 화자의 생략 전·후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화자들은 거의 모든 내용어에 H*나 L+H*를 구현하였고 그 중에 공소화 후에 남는 내용어로서의 명사에도 피치악센트를 구현하였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생략 현상을 표시하는데 있어 원어민 화자는 단어의 길이를 늘리고 피치 범위를 증가시키고, 피치악센트를 대조초점(동사구 생략, 공소화: H*/L+H*)이나 의미적 비중이나(슬루싱: H*)에 따라 실현하는 등 다각도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인 화자는 길이 정보에만 의존하였다. 단어 길이를 늘이는 것 외에 피치 범위의 증가는 무작위적이었고, 피치악센트는 단어마다 H*나 L+H 이중성조를 구현하는 중에 기능어를 많이 포함한 동사구 생략과 슬루싱에서는 대체로 H*를, 내용어를 많이 포함하는 공소화에는 대체로 L+H*를 구현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영어의 동사구 생략, 슬루싱, 공소화 구문에서, '생략'이 어떠한 음성학적 영향을 주는지를 생략 앞뒤의 단어 길이와 피치범위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피치악센트의 실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음성적으로, 원어민 화자는 동사구 생략, 슬루싱, 공소화에서 생략과 인접한 단어의 길이와 피치범위를 모두 증가 시켰으며, 단어 길이에서는 슬루싱의 의문사를, 피치범위에서는 공소화의 N1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는, 단어 길이에 있어서 원어민 화자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피치범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피치악센트의 실현에 있어, 원어민 화자는 의미상 대조 초점을 갖는 동사구 생략과 공소화 구문에서는 H*와 L+H*로, 의미적 비중이 큰 의문사를 포함하는 슬루싱에서는 H*로 실현하였으나, 한국인 화자는 단어마다 H*나 L+H 이중성조를 실현하는 중에, 기능어가 많았던 동사구 생략과 슬루싱 구문에서는 H*를, 내용어가 많았던 공소화 구문의 명사에는 H*와 L+H*를 실현하였다. 한국인 화자는 의미와 관련된 피치악센트 구현에 어려움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서울말을 사용하는 한국어 화자들은 원어민과 같은 억양의 실현과 해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의미와 관련되는 억양의 실현에서는 더더욱 취약했다. 이는 모국어인 한국어가 영어의 '피치악센트'의 개념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한국어는 피치악센트 없이 LHLH 성조로 악센트구가 구성되고, 운율적 구설정(phrasing)에 의해 초점을 표시한다. 따라서, '피치악센트'라는 개념이 없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은 피치악센트의 구현과 해지 모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중의적인 영어 문장의 의미 구분에 있어 모국어에서 익숙한 '구설정'으로 의미를 구분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교사와 교재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학습이 영어를 접하는 환경에서 영어를 학습해 온 한국어 화자들에게 억양의 습득과 같은 것은 아예 간과되었고, 의사소통 능력을 고양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왔다. 이제는 적절한 억양의 학습을 위해, 구조적·표면적으로 동일한 문장이라도 실제의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서 사용되는 발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장의 정보성 또한 고려해 화용적 의미에 알맞는 억양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절한 영어 억양 패턴을 교육해야 한다. 다양한 문맥과 함께 상황에 맞는 억양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접하도록 유도한다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 2000. "억양음운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 비교." *언어학*, 8(1): 1-26.
- 김희성. 2004. 「영어 생략 구문의 음운·음성적 특성과 억양 실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Cambier-Langeveld, T. & Turk, A. E. 1999. "A Cross-Linguistic Study of Accentual Lengthening: Dutch vs. English," *Journal of Phonetics*, 27, 255-280.
- Cooper, W. E. & Piccia-Cooper, J. M. 1980. *Syntax and Spee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ndel, J. K.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 ed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1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Semantics*, 457-466.
- Jayaseelan, K. A. 1990. "In Complete VP Deletion and Gapping." *Linguistic Analysis*, 20, 65-81.
- Kuno, S. 1976. "Gapping: A Functional Analysis." *Linguistic Inquiry* 7, 300-318.
- Ladd, D. R.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rehumbert, J.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 D thesis, MIT.
- Ross, J. R. 1967. *Constraint s on Variables in Syntax*. Ph. D. Dissertation. MIT.
- Siverman, K., Beckman, M., Pitrelli, J., Ostendorf, M., Wightman, C., Price, P., Pierrehumbert, J. & J. Hirschberg. 1992. "ToBI: a standard for labeling English Prosody." *Proceeding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 2: 867-70. Banff, Canada.

접수일자: 2004. 4. 30

게재결정: 2004. 6. 15

▲ 김희성

경기도 용인시 남동 산 38-2 (우: 449-728)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Tel: +82-11-352-1660

E-mail: heesung0221@hotmail.com

부 록

<실험 문장>

동사구 생략

1. Sue won't sing tonight but I will sing tonight.
Sue won't sing tonight but I will.
2. Charlie won't run away but I will run away.
Charlie won't run away but I will.
3. Jane has a doll and I will have a doll.
Jane has a doll and I will, (too).
4. Bob seems angry and George is angry.
Bob seems angry and George is.
5. Kate is an idiot and Jim is an idiot.
Kate is an idiot and Jim is, (too).
6. I haven't talked to Bob but she has talked to Bob.
I haven't talked to Bob but she has.
7.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worked for IBM.
Alan has worked for IBM and Sandra has, (too).
8. She speaks French and I can speak French.
She speaks French and I can, (too).
9. I can't lend money but Mary can lend money
I can't lend money but Mary can.

슬루싱

1. Somebody hid my notebook but I don't know who hid my notebook.
Somebody hid my notebook but I don't know who.
2. The faculty will meet sometime on Sunday but I can't imagine when the faculty will meet.
The faculty will meet sometime on Sunday but I can't imagine when.
3. Sam is going somewhere but I can't imagine where Sam is going.
Sam is going somewhere but I can't imagine where.
4.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John is going to Paris.
John is going to Paris but I can't guess when.
5. I lost hope but I can't remember where I lost hope.
I lost hope but I can't remember where.

6. I wanted to start a successful business and this book tells me how I start a successful business.

I wanted to start a successful business and this book tells me how.

7. I buried them but I don't remember where I buried them.

I buried them but I don't remember where.

8. Jenny left but it's not clear when Jenny left.

Jenny left but it's not clear when.

9. They are going to serve the guests but it's unclear what they are going to serve the guests.

They are going to serve the guests but it's unclear what.

10. He buys something but it's uncertain what he buys.

He buys something but it's uncertain what.

공소화

1. Sam sells grain and Woody sells legumes.

Sam sells grain and Woody legumes.

2. Tom earns fame and Mary earns money

Tom earns fame and Mary money

3. Dick has a pencil and Eddy has a ruler.

Dick has a pencil and Eddy a ruler.

4. John raises a cat and Sandy raises a monkey.

John raises a cat and Sandy a monkey.

5. Jack fixes a machine and Alan fixes a radio.

Jack fixes a machine and Alan a radio.

6. Max hears howling and Oscar hears yelling.

Max hears howling and Oscar yelling.

7. I know you and you know me.

I know you and you me.

8. Max learns a poem and Larry learns a song.

Max learns a poem and Larry a song.

9. I lost a bracelet and Simon lost a necklace.

I lost a bracelet and Simon a necklace.